

그리스도인 18.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Christian 18. Christians are reconciled to God.

화해(reconcile)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반목과 다툼을 제거하고 화평하도록 화합케 하는 것을 말한다.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화해케 하는 사역이라고 소개한다. 몇 구절 성경말씀을 소개한다.

1. 로마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받기보다 그분과 화해하기를 원하신다. 그리하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과 화해케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는 일을 하셨다.

2.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화해되는지 자세히 알 수 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고후 5:18)

18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화해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에게로 화해하도록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전가하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고후 5:19)

19절에 등장하는 범법(trespases)은 법률상 반역행위, 중죄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범법은 부채와 같다. 부채를 갚지 않으면 손실과 해를 입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범법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두면 하나님의 심판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

부채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처리하듯이 죄도 값을 지불하고 처리할 수 있다. 전가(imputing)는 넘긴다는 말이다. 그가 계산해야 할 것을 내가 계산하는 것을 나에게 전가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켜 그분이 처리하도록 하신다.

이것을 **죄의 전가**라 한다.

그리스도는 죄인이 아니고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죄인처럼 취급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로부터 넘겨받은 부채와 같은 죄에 대해 죄 값을 지불하셨다. 이 죽음에 대해 이사야서 53장 5절은 말한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그는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 53:5)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범법들 때문에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 때문에 상하였다. 그가 징벌을 받으므로 우리가 **화평(peace)**을 누리게 된다.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을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21)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 된다면, 반대로 죄인이 아니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 되어(넘겨져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인정하시듯 이제 그분을 통해 우리도 인정하고 받아주신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된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의하면,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죄인들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선포한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청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고후 5:20)

3.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또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그분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¹⁷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¹⁸이는 우리 둘이 그분을 통해 한 성령에 의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었기 때문이라.

이 구절들은 화해한 자들이 누리는 것에 대해 보여준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화해로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공동 상속자다(롬 8:17). 하나님과 화해한 자들끼리는 전날에 원수지간이었어도 이제는 하나가 된다.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각각 하나님과 화해한다면 그들끼리 하나가 될 수 있다.

4. 골로새서 1장 21에서 22절까지.

또한 한때는 너희가 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있었고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화해하게 하셨으니, ²²곧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기록하고 흠이 없으며 책망 받을 것이 없는 자들로 드리기 위해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 안에서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들 역시, 우리가 한 때는 하나님과 원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그분의 육체의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셨다고 말한다. 이제 화해된 자들은 하나님께로 인도 되어 그분의 눈앞에 기록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구절들은 우리가 본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였음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와 화해하고자 하셨다. 그리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화해하게 하신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며 엄청난 값이 치러진 것이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 되어,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임당하셨고 반대로 그분의 의가 우리 것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결끄럽지 않게 되는 것, 의로 여겨주시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화해 헌물(a propitiation)이다.

또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것이니라.(요일 2:2)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이니라.(요일 4:10)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사람이다.

※ 사용된 성경 텍스트는 KJV 영어성경에서 번역한 근본역이다.